



소개

마스터 히브리드 메카니카 울트라 썬 미닛 리피터 투르비옹

울트라 썬 오토매틱 무브먼트에 플라잉 투르비옹과 미닛 리피터가 결합된 오픈워크
타임피스

주요 특징:

- **스켈레톤 무브먼트, 그 이상:** 칼리버를 구성하는 593 개 부품의 아름다운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 예술적인 오픈워크와 사파이어 브리지
- **울트라 썬 칼리버:** 하이 컴플리케이션 오토매틱 칼리버 두께 5mm, 케이스 높이 8.25mm X 직경 41.4mm
- **정교한 케이스의 구조:** 상징적인 마스터 그랑 트래디션 코드를 재해석한 60 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새로운 케이스 - 칼리버 362 를 위해 탄생한 최초의 맞춤 제작 버전
- **가장 얇은 오토매틱 미닛 리피터 투르비옹:** 미닛 리피터가 설계상 구조에 완벽하게 통합된 무브먼트

메종의 저명한 울트라 썬 칼리버를 새롭게 해석한 예거 르쿨트르의 마스터 히브리드 메카니카 울트라 썬 미닛 리피터 **투르비옹** 는 미닛 리피터와 플라잉 투르비옹을 결합한 모델입니다. 두께 8.25mm 의 18K 핑크 골드 케이스(750/1000)에 탑재된 전체 메커니즘은 투명한 사파이어와 무브먼트를 감싸는 오픈워크 링 형태의 다이얼을 통해 무브먼트의 모습을 가감 없이 드러냅니다. 보유한 7 개의 특허 중 6 개는 2014 년 칼리버 362 를 출시하기 위해 특별히 개발됐으며, 풀 플라잉 원 미닛 투르비옹과 아름다운 사운드를 재현하는 미닛 리피터 등 워치 메이킹 분야에서 가장 주목하는 몇 가지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대한 유산: 차임 워치, 울트라 썬 칼리버, 정확한 시간 측정

2014 년 출시 당시 획기적인 기술과 혁신적인 미학을 선보였던 칼리버 362 는 차임 컴플리케이션과 정밀 타임키퍼이라는 예거 르쿨트르의 뛰어난 두 가지 유산을 계승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얇은 오토매틱 미닛 리피터 투르비옹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울트라 썬 무브먼트를 제작하는 예거 르쿨트르의 전문성은 자크 다비드 르쿨트르와 에드몽 예거의 협업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07 년, 두 사람은 두께가 1.38mm 에 불과한 칼리버 145 를 공개하며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최초의 투르비옹 무브먼트(1946 년)와 최초의 투르비옹 손목시계(1993 년)를 제작한 이후, 정밀함과 정확성을 향한 메종의 탐구는 투르비옹 케이스 구조와 헤어스프링 형태에 관한 수많은 발명으로 이어졌으며, 최적화된 설계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1870 년 첫 번째 미닛 리피터를 선보인 이래, 예거 르쿨트르는 200 개 이상의 리피터 칼리버를 제작해 왔습니다. 매뉴팩처는 타종 컴플리케이션과 음향 품질, 음색, 음량, 박자를 연구하기 위해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했고, 그 결과 칼리버 362 에 통합된 특허를 포함한 수많은 특허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칼리버 362 는 컴플리케이션마다 별도의 레이어를 중첩하는 대신, 처음부터 통합 무브먼트로 설계되었습니다. 미닛 리피터는 베이스 칼리버에 추가된 형태가 아니라 구조에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체형 구조는 놀랍도록 얇은 무브먼트 두께를 완성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타종 메커니즘은 최소한의 수직 공간만 차지하는 형태로 다시 설계되었습니다. 칼리버 전체 부피의 약 3 분의 1 을 차지하는 최적화된 구조를 통해 음향 성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두께를 줄이기 위해 각 부품을 얼마나 세심하게 계산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 엔지니어들은 메인 플레이트 내 랙과 해머, 공의 위치를 새롭게 디자인함으로써 전통적인 리피터 구조의 추가 레이어를 제거했습니다.

59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무게 0.248g 의 플라잉 투르비옹도 슬림한 실루엣을 완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상부 브리지가 없는 원 미닛 플라잉 투르비옹은 구조상의 높이를 줄이는 동시에 시각적으로도 가벼워 보입니다. 상부 지지대가 사라지면서 무브먼트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고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 수직 공간을 최적화했습니다.



로터 역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칼리버 362 는 기존의 중앙 로터 대신 무브먼트를 둘러싼 페리페럴 로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획기적인 해결책은 와인딩 로터의 중첩으로 인해 두께가 두꺼워지는 현상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오토매틱 와인딩은 보장하면서 울트라 썬 실루엣은 유지합니다. 미닛 리피터 통합, 플라잉 투르비옹 구조, 페리페럴 와인딩 시스템과 같은 개별 요소는 단순히 추가 기능이 아닌, 얇은 두께를 구현하는 구조적인 요소로 고안되었습니다.

가벼운 무게, 투명성, 시각적 대비

칼리버 362 를 장착한 히브리스 메카니카 에디션은 무브먼트를 온전히 드러냅니다. 미닛 리피터 메커니즘의 전체 작동 과정과 춤을 추듯 매혹적인 움직임의 투르비옹 등, 조립에만 7 주가 소요되는 무브먼트의 섬세한 593 개 부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칼리버의 기존 브리지 내부에 창을 만드는 스켈레톤 기법은 무브먼트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강조하는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예거 르쿨트르는 무브먼트 작동에 필수적인 브리지와 플레이트를 구성하는 부품이 여전히 칼리버의 일부를 가려 시야를 제한하기 때문에 이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혁신적인 해결책, 사파이어 브리지: 무브먼트의 구조적 안정성에 필수적인 세 개의 브리지는 메탈 대신 투명한 사파이어 크리스털을 사용하여 정교하게 제작됩니다. 무엇보다 무브먼트 내부에 직접 사파이어 브리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11 개의 루비 주얼의 정밀한 세팅 등 각종 기술적 난제를 해결해야 했기에 이는 엄청난 성과였습니다. 사파이어에 직접 세팅할 수는 없어, 18K 핑크 골드(750/1000) 샤통은 난제를 해결하고 칼리버의 미적 아름다움도 한층 더 높여주는 획기적인 해결책이 되어주었습니다. 사파이어 브리지는 폴리싱, 반사 방지 코팅, 정전기 방지 처리 공정을 거쳐 내부를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시각적 깊이를 구현합니다.

14 가지 장식 기법: 칼리버의 아름다운 외관은 케이스에 적용된 샌드 블래스팅, 페를라주, 폴리싱, 플랫 폴리싱, 스트레이트 그레이닝, 리니어 브러싱, 서큘러 브러싱, 꼬뜨 드 제네브, 다이아몬드 폴리싱, 스네일링, 선레이 브러싱, 베벨링, 기요셰 등 다양한 마감 기법과 만나 더욱 강조됩니다. 정밀한 수작업 마감은 핸드 베벨링과 페를라주에서부터 다양한 표면에 적용된 다채로운 브러싱과 폴리싱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품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디테일을 향한 메종의 헌신과 열정은 무브먼트를 장식한 48 개에 달하는 내부 앵글과 60 개의 핸드 베벨링 처리된 부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압도적인 다이얼: 다이얼은 칼리버에 새롭게 적용된 미학적 접근에 기반하여 윤곽을 따라 빛의 향연을 펼쳐내는 다양한 표면 마감을 적용한 18K 핑크 골드(750/1000) 케이스로 우아하게 완성됩니다. 정교한 디스플레이를 감싼 다이얼은 무브먼트 주변을 따라 간결한 18K 화이트 골드(750/1000) 오픈워크 링 형태를 이루어, 예거 르쿨트르의 메티에 라르™ 아틀리에에서 탄생시킨 걸작인 우아한 기요세 패턴 인하우스 18K 핑크 골드(750/1000) 와인딩 로터의 모습을 완전히 드러냅니다. 시각적 대비를 연출하기 위해 18K 핑크 골드(750/1000)로 제작한 아플리케 아워 마커와 예거 르쿨트르 로고는 핸즈 그리고 와인딩 로터와 조화롭게 어우러집니다.

통합이 빚어낸 예술: 울트라 썬 칼리버 362 를 위해 디자인 및 재해석한 정교한 케이스는 60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리지널 칼리버 362 를 위해 개발한 혁신적인 미닛 리피터 작동 방식은 전통적인 슬라이드와는 달리 10 시 방향의 특허받은 개폐식 버튼으로 활성화하고 8 시 방향에 자리한 두 번째 버튼을 사용하여 잠금 및 해제합니다. 모든 버튼은 히브리스 메카니카 칼리버 362 의 새로운 케이스에 완벽하게 맞춰 재설계되었습니다.

기술적인 독창성과 얇은 두께가 돋보이는 걸작

187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칼리버 362 를 탑재한 미닛 리피터는 '완벽한' 차임을 구현하려는 매뉴팩처의 강렬한 열정을 고스란히 반영하며, 처음부터 조정 기관 및 오토매틱 와인딩 시스템을 고려하여 설계된 타종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디자인은 탁월한 음향 성능과 극도로 얇은 두께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합니다. 칼리버의 메인 구조에 통합된 미닛 리피터는 직사각형 모양의 일체형 공으로 순수한 음색과 공명을 이끌어냅니다. 연결 방식의 트레뷰셰 스타일 해머는 공에 빠르고 정확한 타격을 전달하여 강렬하면서도 정교한 사운드를 연출합니다.

칼리버 362 에 맞춰 개발한 매뉴팩처의 특허받은 무음 구간 단축 메커니즘에서도 통합의 철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15 분 단위의 차임이 없을 때 발생하는 시간과 분 사이의 무음 구간을 현저하게 줄여 끊임 없이 유려하게 이어지는 음향 시퀀스를 유지합니다.

내부가 보이는 베이스 플레이트, 부품을 제자리에 고정하는 콕 또는 브리지가 없는 형태, 그리고 특허받은 플라이징 밸런스 휠은 내부를 온전히 드러내는 플라이징 투르비옹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합니다. 예거 르쿨트르 엔지니어들은 동심원을 이루는 '심장 박동'으로 정확한 시간 측정을 보장하는 동시에 슬림한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S 자형 헤어스프링을 개발하고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투르비옹 브리지가



없으므로 외부에서 S 자형 헤어스프링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투르비용 구조와 전체적으로 슬림한 칼리버의 특성으로 인해 혁신적인 스프링 형태가 발명되었습니다.

세 가지 핵심적인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높이가 5mm 에 불과한 울트라 썬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에 칼리버 362 의 기술적인 아름다움과 정교한 디테일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메인 스프링을 와인딩하는 페리페럴 로터는 칼리버를 두껍게 만들지 않고 다이얼과 케이스백 모두에서 무브먼트의 아름다운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는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안된 36 개의 세라믹 볼 베어링에 장착되었으며 착용자의 손목 움직임에 맞춰 작동되는 페리페럴 로터는 양방향으로 자유롭게 움직여 타임피스를 효과적으로 와인딩합니다.

상세 정보

마스터 히브리드 메카니카 울트라 썬 미닛 리피터 투르비용

케이스: 18K 핑크 골드(750/1000)

크기: 41.4mm x 8.25mm

칼리버: 오토매틱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362

기능: 시, 분, 무음 타임랩스 단축 시스템을 장착한 미닛 리피터, 1 분 플라잉 투르비용

파워 리저브: 42 시간

앞면 다이얼: 화이트 골드, 오픈워크

뒷면 다이얼: 투명한 사파이어 크리스탈

방수: 30m

스트랩: 브라운 엘리게이터 가죽, 작은 스케일 안감, 18K 핑크 골드(750/1000) 핀 버클

제품 번호: Q13125S2

리미티드 에디션: 10 피스



벨리 오브 인벤션 소개

예거 르쿨트르의 탄생지이자 오늘날까지 터전이 된 발레드주를 기념하는 벨리 오브 인벤션은 600 년 전 유럽 각지의 망명자들이 안식처를 찾아 모여들었던 이 지역에 경의를 표합니다. 초기 정착민들은 척박한 환경과 혹독한 추위 속에 살아남기 위해 강한 의지와 인내심, 창의성을 길러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10 세대가 지난 19 세기 초, 독학으로 시계 제작을 익힌 앙투안 르쿨트르는 현대 워치메이킹의 초석이 될 기계들을 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이전에 없던 정밀한 수준으로 시계 부품 측정과 가공이 가능해졌습니다. 1833 년 설립된 최초의 르쿨트르 워치메이킹 아틀리에에서부터 이러한 창의적인 정신과 정밀함 및 정확성의 추구는 메종을 정의하는 핵심이 되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력이 집약된 칼리버는 자체 시계에 탑재하려는 유수 브랜드들의 선택을 받았으며, 메종이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라는 독보적인 명성을 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430 건 이상의 특허로 증명된 끊임없는 혁신은 메종이 추구하는 정밀함과 정확성의 동력이자, 현재와 미래를 잇는 지표가 되어 줍니다.

예거 르쿨트르 소개 -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

1833 년부터 혁신과 창의성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발레드주의 평화로운 자연 환경에서 영감을 받은 예거 르쿨트르는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문성과 메커니즘의 정확성으로 독보적인 워치메이커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로 알려진 매뉴팩처는 1,400 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 제작을 통해 독창적인 정신을 끊임없이 표현해 왔으며 430 여 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랑 메종의 워치메이커는 190 년 이상 축적된 전문 지식과 열정을 바탕으로 정밀한 최첨단 메커니즘을 디자인, 제작, 마감, 장식하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언제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합니다. 180 여 개의 기술력이 한 지붕 아래 모인 매뉴팩처에서 기술적 독창성과 미적 아름다움, 절제된 세련미가 결합된 파인 워치메이킹 작품들이 탄생합니다.
